

시각장애인들의 전문 일자리 ‘안마사’ 포털 인물정보에 등록된다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에 ‘안마사’, ‘공인중개사’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시각장애인들의 전문 일자리인 ‘안마사’가 새롭게 등록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서비스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물정보 직업목록에 ‘안마사’와 ‘공인중개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https://www.kiso.or.kr/부설기구/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포털 인물정보서비스에 ‘안마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기관 또는 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만 자격을 딸 수 있는 유보직종으로, 특수학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 수련 기관에서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안마사자격증 소지자는 약 1만1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안마사들의 인물정보 유입이 기대된다.

이밖에 KISO는 ‘공인중개사’를 신설해 기존의 ‘부동산컨설턴트’ 직업명과 구분하여 고유의 전문성과 직업명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KISO는 최근 ‘청소년지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등 다양한 전문직업인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KISO는 ‘모델’의 등재 기준을 ‘패션모델, 광고모델, 잡지모델 등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로 개정해 미디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모델 활동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정치인, 외국공무원, 북한정치인’ 직업명을 ‘정치인, 공무원’으로 통합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위원장은 “안마사는 마사지사과 구분되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보건의료인으로서 포털 인물정보서비스에 등재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업 활동과 사회 진출에 발맞춰 인물정보 목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6)

[붙임1] 신설된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

직업분류1	직업분류2	노출직업명	등재 기준
보건의료인	보건인	안마사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문직업인	전문직업인	공인중개사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붙임2] 등재기준 수정된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

모델	
현행	수정
패션쇼(패션모델), CF모델, 잡지모델(표지, 인터뷰 포함)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패션모델, 광고모델, 잡지모델 등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